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0년도 표어 ☉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에베소서 강해

빛의 자녀들 II

(에베소서 5:1-17)

Children of Light II

(Ephesians 5:1-17)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Children of the light must shine on the earth and become wise people as well as imitate God and be bom again.

1. 빛을 비추는 자

어두움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며 아울러 혼돈이 사라지고 조화와 질서 있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가졌다고 말만 하지 말고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추는 삶은 봉사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는 희망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짓과 다름과 불의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사라지고, 진리가 나타나며 공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1. A person who shines the light

Darkness makes us uncomfortable. It makes us lose our way. However, when the light shines forth, darkness recedes. In addition, chaos disappears and a world of hamony and public order comes forth. The Apostle Paul says, "Don't say that we have the light, but shine the light into the world." The life of shining is a life that serves people and preaches the gospel.

The Apostle Paul teaches that since we have become the 'light of Jesus Christ,' we must now live in the light. In His light, there is hope, glory, God's truth, a life worth living, and fruitfulness. Therefore, wherever the saints go, the result should be that the darkness recedes. For example, whenever a falsehood, a quarel, an immorality, or a vice vanishes, the result is that the truth appears and justice is met, which is the fruit that God enjoys.

2. 지혜로운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17절은 빛의 자녀들이 지녀야 할 지혜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2. A wise person

Children of the light do not need to have intelligence from the world but the intelligence that comes from God. Verses 15-17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lligence that children of the light must have.

(1) 시간을 선용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시간 사용을 잘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1) A person who makes good use of his time

A wise person must make good use of his time. The Apostle Paul says,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명철이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 어둡고 밝은 것,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할 말과 안 할 말,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설 곳과 앉을 곳을 구분합니다.

(2) A person who knows God's will

We must always pray that God would give us wisdom. Wisdom means to have discernment. Anyone with wisdom is able to discern between right and wrong, darkness and light, things that need to be done first and last, words that must be spoken and not spoken, places that he needs to go and not go, and places where he should stand and sit.

(3)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는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18절은 명령형으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복수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이 충만한 자요, 말씀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복종합니다.

(3) A person who is full of the Spirit

A wise person does not get drunk on wine. Instead, he is filled with the Spirit. The imperative of verse 18 is not asking whether or not we receive the spirit, but commanding that the saints receive the Spirit. The plural form of the imperative indicates that Paul is not commanding one private person, but the whole church. The fullness of the Spirit means the same thing as the fullness of God's word. A person who is full of the Spirit is full of His words, while a person who is full of His words is full of the Spirit. Moreover, a person who is full of the Spirit worships, keeps good company, gives thanks, and obe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며,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As you imitate God as children of the light, living as one bom again and filled with wisdom and the Spirit,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children of God who shine the light all over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이종윤 목사의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강해로 연일 뜨겁게 타오르다

11월1일(월) - 27일(토) 새벽5시, 본당

11월1일(월)부터 시작된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종윤 목사의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가 본당을 가득 메운채 뜨겁게 계속 되고 있다. 11월27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한 24일간 계속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사명자 대회의 6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붙잡고 국가와 민족, 가

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말씀 중심의 삶과 올바른 신앙의 체계정립을 이루는 시간을 갖는다. 새벽을 가르며 달려나와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독교 강요 강해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교회설립기념주일 · 추수감사절』 집사, 권사 임직 · 선교사 파송식 거행

11월28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11월28일(주)을 교회설립기념주일 및 추수감사절로 함께 지킨다. 주일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갖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설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

사드리며 제11대 집사, 제10대 권사 임직식과 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다. 모든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되는 교회설립주일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도한다.

제3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4학기 수료자 26명 · 10years round table members 5명

"목회자의 리더십과 현대 사회"를 주제로 10주동안 계속되던 제3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1월1일(월) 강의를 마지막으로 10주간의 모든 학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학기를 통하여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 연구원은 4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하는 회원 26명과 10년 동안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한 회원 5명을 배출하였다. 제3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은혜중에 마치게하신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 4학기 수료자 고철일 김도길 김미희 김병천 김복임 김부임 김상원 김수주 김실구 김재월 나순자 박점수 심순자 이경숙 이상숙 이재순 이홍복 임행자 전종혁 정의겸 조연옥 지연옥 최명선 한연수 황좌진 황현영
· 10years round table members
김부영 박세철 이보배 임수강 차양숙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0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10주간의 학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수료식을 갖는다. 이번 열

린프로그램 전체수료인원은 410명이고,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마가복음>-78명 광대수 구희은 권애란 김경자 김경진 김명심 김명애 김미성1 김선희7 김선희9 김순영 김애순 김영숙 김영진 김옥순 김윤숙 김정제 김혜선 김혜중 문남이 박경순 박길희 박미경5 박순복 박정순1 박정임 박정자 박찬미 박혜선 박화실 박희연 석상화 손경화 송령희 송희경 신종건 양육희 오선혜 오혜정 우미란 유슬기 윤계진 이경아 이미경 이미송 이민숙 이승자 이영란 이영자8 이윤미 이현주 이홍숙 이희숙 장대형 장항자 장효영 전현주 정경심 정미연 정선희 조은희 조정미 주원숙 주임옥 최금봉 최미경 최세정 최유진 최종희 최준숙 태경숙 하영숙 한미희 한은미 한효숙 홍정란 홍지민 황선옥1
- <에사더>-14명 김영주 김옥순 김찬진 손용문 유선희 이인숙2 이홍숙 이해순 정병무 정복순1 전정숙1 최금봉 최형열 탁경준
- <출애굽기>-32명 권오영 김경애2 김경희12 김대분 김도현 김미경3 김미중 김선희9 김성례 김영숙10 김옥순 김정자2 김정제 김진경 김형상 문금희 박화실 서양지 송인덕 송행희 송희경 신혜진 오정숙 이홍숙 전광환 전현주 최금봉 최용결 최인영 최진경 한미숙1 한인진
- <요한계시록>-29명 김경희12 김미선2 김연화 김옥순 김은석 김점숙 김정순3 김찬진 남태영 박석현 박성신 박인규1 박진희4 서경애 손용문 송미령 신인순 신혜영 신혜진 양종경 유선희 육순자 이상호2 이인숙2 장성자1 전배호 정병무 조순엽 조정옥
- <성경통독반>-47명 강소영 고정례 권은주 김경복 김경순3 김경희10 김경희12 김경희14 김미성1 김성례 김옥순 김은정5 김인숙2 김인영2 김자숙 김점두 김정순6 김정제 김필임 김홍두 김희순 남현주 노진아 박종녀 박한옥 서영선1 서중숙 전해영 신선주1 안선희 양정실 원세경 유안순 이경숙8 이은미2 이인보 이인숙4 인계선 전광환 전미애1 전숙향 정부순 정춘혜 최정금 한경신 홍현미 황선옥1
- <교사양성반>-18명 김원중 김정숙7 김준복 김행란 문경덕 박선주 송미령 신미선 양동환 오재옥1 이경란2 이광배 이양선 이은호2 이은희7 차영립 최순정 황선영1

- <교구일꾼양성반>-6명 신봉하 이경실 전숙향 차인화 최정환 현성출
- <결혼예비학교>-8명 김지현 김영진 배석훈 안미영 안아름 이규훈 이혜연 최홍석
- <주부대학>-37명 강창수 권순덕 김경애2 김남순1 김명심 김수원 김숙영2 김양숙 김영식 김정순6 김찬진 김희순1 박경희 박문경 박순복 백명자1 신금전 심상필 유순섭 유순임 윤 윤 이경란2 이안순 이은희 이인숙2 이태정 이현숙3 장명순 장성자1 장혜경2 정경자 정정숙 조영자 조정옥 표현희 홍순복 황선옥1
- <살림경로대학>-48명 공진문 구정례 국산옥 김경철 김덕자 김복녀 김복순 김봉실 김신애 김자경1 김혜경 김희자 박경희 박두영 박영숙1 백명자 백영숙 서기용 손명근 송옥혜 심영숙 엄정순 오재면 원명희 원복순 유병옥 윤만현 유순임 이만화 이순례 이재순 이현숙3 인천희 임명자 전행자 정병무 정애신 정연택 조명녀 조성에 진경자 최금자 최무순 최정옥 최정화 최향분 최화옥 홍광숙
- <선교대학>-27명 강낙훈 김미성 김태영 김혜중 문옥일 박진영 백승갑 손용문 양재성 오은이 이복희 이소명 이영기 이은희7 이종길 이준호3 이현주 임종태 장석남 전현주 정문근 정상진 진영숙 하옥봉 홍미영 홍성일 황선옥1
- <마리아 학교>-13명 공유진 김은송 김태환 노진희 손예진 송하영 우정균 이수아 이영희 이태민 장유정 최희준 황취성
- <영어성경>-17명 기희성 김지원 김진희 노문환 박동우 박성신 백승경 유울상 이명희 이순화 이승자 장정화 정용근 조동희 지영순 최인영 프러티바
- <수화교실>-2명 백명자 이춘실
- <서울음악교실>-34명 김경순 김기옥 김성혜 김웅기 김정순6 김지연 남궁규 문 철 박미순 박순선 백영자 서경희2 신현일 안명심 예치수 유재숙 윤 경 윤자영 윤종현 이상선 이영철 이옥선 이인표 장영순 장호현 전연수 조경순 주유정 최순례 최유진 최정환 최향영 한민아 한혜주

그리스 핸드벨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며

2000년 12월 25일 서울교회 대치동 새 예배당 입당과 함께 창단된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는 매 주일 2부 예배시 헌금송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그동안 수 차례 특별 찬양, 위문 공연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핸드벨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국내 최정상에 있는 송재철 집사님을 지휘자로 모시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연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세계 핸드벨 심포지움에도 참가해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교회 설립 19주년을 기념하며 정기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연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가 되기를 바라며, 그 날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교회, 중현교회에 핸드벨 콰이어를 창단하도록 하고, 한국교회에 핸드벨을 보급하는데 선두에 서신 이종윤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모든 것을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대학 · 호산나대안학교 재학생 전국장애인

실내조정생활체육대회 금1, 은2

지난 10월 30일 잠실종합운동장 체조관에서 열렸던 2010 서울특별시장배 전국장애인실내조정생활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대안학교 서민규는 학생부(500M) 금메달, 노인케어학과 2학년 윤종현과 교양학부 1학년 이지우는 일반부(1000M) 은메달을 각각 수상하였다.



2010 가을 화요정오음악회



이번 주 화요정오음악회는 차주연 오르간 독주회(서울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열린다. 차주연선생은 종신대 교회음악과 졸업, 한양대 음악대학원 석사 졸업,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석사 졸업,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석사 졸업하였고 현 서울 장신대학교 출강, 서울 교회 오르가니스트이다.

목사이종윤 · 박사 이종윤 - 목회자의 길 16

아시아 27억 앞에서 강의 하겠습니다.

이종윤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 있는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Summer School에서 공관복음서 강의 요청을 받고 학위받고 첫 강의를 한다. 한 학기분 Syllabus를 만들고 민반의 준비를 하고 캘리포니아로 갔다. 라성 한인 신학교에서 야간에 강의도 했다. 이종윤은 한국에 세 장의 엽서를 보냈다. 연세대 신과



개교 1년만에 교수6명, 학생9명으로 성장한 ACTS. 가족들과 함께.

대학, 종신대, 총현교회에 학위취득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어디든 먼저 부르는 곳이 하나님에 정하신 일터로 알고 가겠다고 기도한다. 그러나 의외로 제일먼저 초청편지는 새로 개교한 ACTS의 한철하 부원장의 청빙서였다. 아세아복음화라는 교육이념을 갖고 창설된 ACTS(Asia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 Mission)는 아시아 신학연맹(ATA)이 아시아인의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해 아시아에 고등교육기관을 세워 아시아 지도자를 배출하자는 뜻으로 세운 학교다. 초대 이사장 한경직, 학장 마켓, 부학장 한철하였다. 첫 교수진은 손봉호 이종윤, 마르틴 벨슨이었다. 학교 재정난으로 손봉호는 외국어대에 회관어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이종윤이 첫 교수로 부임하여 교무처장, 학생처장을 겸하였고 카타로그를 만들었다.

학생4명, 교수5명, 세계에서 교수 학생 비례 최우수 학교다. 이종윤은 기도했다. 내가 오늘부터 아시아 27억 앞에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담력을 달라고 기도했다. 개교3년내에 Ph.D 소지자 17명의 교수진을 확보하니 단연 아시아 최고의 신학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을 한다. 그때만 해도 학위소지자가 희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종윤은 연대, 장신, 서울신대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고 강연, 설교 요청이 폭주했다.

공산권 선교 연구소를 개소하여 1979년 3월1일 미국키신저 국무장관이 북경방문 직후 4월1일에 중공을 방문하여 자하교회 성도 2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북한선교를 위해 노르웨이등 북구 지역 선교단체들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복음주의 신학회, 복음주의 협의회를 조직하여 두 기관의 초대 총무가 되어 신학운동도 주도했다. 성경과 신학이라는 신학논문집을 창간하고 편집위원이 되었다. 이종윤은 교수로서도 탁월했지만 설교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새문안교회 강신명목사가 은퇴하면서 이종윤을 청빙한다. 그러나 ACTS를 위해 할렐루야교회를 창립한다. 7년6개월 목회하는 동안 2,500명 이상 출석하는 급성장을 이루었고 안식년을 예루살렘 Tantar Ecumenical Institute로 가서 신약개론을 집필하고 주말마다 고고학자들과 성경지리를 연구했다. 귀국 후 할렐루야교회 최순영장로가 인수한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여 4년동안 기독교 대학의 기반을 놓는다. 인기없는 총장이지만 이종윤은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 쓰는 것이 본업인데 교육행정가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임을 원했으나 이사장 최순영장로가 동반 사임을 제안하여 교내 게시판에 방을 붙여 사의를 표하고 행방을 감췄다. 최순영장로와 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는 대학 인수시 부채에 대한 보증 때문에 이종윤만 사임할 수 있었다.

이종윤은 총현교회 2대목사로 부름을 받는다. 그가 기도한 대로라면 젊어서는 50세전에는 가르치고 그 후엔 목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년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김창인목사의 은퇴시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갔다. 무엇보다도 떠나는 일이 어려웠다. 필라델피아 제일교회를 떠날 때도 한 분밖에 없는 장로가 목사를 빼앗겼다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다. 교인들은 목사집 지하실에서 직장도 가지 않고 철야금식 기도를 했다. 청년들은 통곡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장로님들이 사표를 돌아가면서 반씩 찢어 날리면서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두 교회 모두 짧은기간 동안 아직 젖 떼낸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종윤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총현교회가 소속된 수도노회가 총현에서 열렸다. 이종윤은 김창인 목사가 만나자고 해서 대학교 교무위원회의까지 미루고 교회로 정한 시간에 갔다. 그 시간에 노회가 개최되어 이종윤 목사 수도노회 가입의 건과 총현교회 당회장 건을 쉽게 통과시킨다. 이종윤은 영문도 모른 채 앉아서 어리둥절했다. 이번엔 세 번째 안건 이종윤목사 위임목사 허락의 건이다. 그때부터 노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형교회 횡포라는 측과 대학원 나온 분에게 유치원 졸업 안했다고 졸업장 가져오라는 격이라는 등 대성이 오고 간다. 사연은 이러했다. 총회 헌법은 교단 신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타 신학교를 졸업하고 타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는 총신에서 1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종윤은 도미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미전 총신3학년 1학기까지 수료했으니 1년과정 이상을 이미 이수한 상태니 문제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편목과정 출신들이 대교회는 넘어가고 자기들만 고통을 주는 총회라면서 고함을 치면서 위임목사는 기필코 한 학기 미필한 과목이수를 한 후 하라는 것이었다. 노회장도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창인목사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으나 이종윤의 만류로 겨우 회의가 마쳐졌다. 이종윤은 총신 학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저녁 늦게야 통화가 되어 노회 결정을 이야기했다. 총신은 교수회를 거쳐 이종윤은 한 과목을 가르치면 한 학기 학점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종윤은 즉시 항의했다. 학력이 부족하여 수업을 받으라 했으면 수강케 해야지 왜 속이는 일을 해야 하는가. 대학교 현직 총장이 총회법을 이루기 위해 교육부법은 어겨도 되는 것인가. 결국 총신의 이상한 제로 일이 점점 난감해졌다. 김창인목사는 즉시 당회를 소집하여 여러분은 목사를 택할 것인가 총회를 택할 것인가 물었다. 장로들은 우리에게 목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기자들을 불러 놓고 김창인목사는 청천벽력같은 선언을 한다. 총현교회는 총회와 행정부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날 이후 총회는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수 십차례 이종윤을 찾아온다. 그러나 "1988년 4월20일 이종윤은 제2대 위임목사로 취임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라고 김창인목사는 위임식에서 선언한다. 총현은 10년간 건축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받았다. 1988년 4월 현재 부채가 태산같아 이종윤은 내 앞의 홍해를 건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다가 홍해작전을 명령받는 (다음호 계속)



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어느덧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견디어온 곡식들이 꽃피우고 열매 맺고 무르익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니 인생의 추수때를 기억 하라는 무언의 경고를 듣는 것 같아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간절히 간구 합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되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되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동안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봉사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맡기신 직분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히 섬기게 하소서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흑사라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소서

이영철 집사

『칼빈길』 주민 여론조사 재 실시 한다

-11월9일(화)부터 국제,청실,선경,삼성,은마,개포우성,미도 대상-

2007년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서울교회 앞 대치동 447번지부터 대치동 633-3번지까지 연장된 도로구간이 삼성로 서73길로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울교회 및 모동교회등이 위치해 있고 서울교회는 연중 국내외의 각종회의, 음악회, 세미나 등이 열리고 있으며 캠프신학세미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145개국 교회 지도자 및 신학자들을 초청한 바 있고, 2009년에는 칼빈탄생500주년 기념대회를 기념학술심포지움, 칼빈홍상제막식·음악회 기념우표 발행 등을 국내외 지도자들을 모시고 성공리에 거행한 바 있다.

이에 역사적 명소가 될 삼성로 서73길(칼빈길)로 2009년도에 명예 도로명 부여 신청을 칼빈탄생5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함께 서울교회는 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청의 요청으로 서울교회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주민 74.6%, 상가 87.5%, 도합 75.3%의 동의를 얻어 제출했으나 구청에서 다시 강남구 전체 주민에게 전화 또는 방문 방법으로 18개의 지루한 질문중 하나로 설문 하므로 이 설문 효과

는 실증되고 말았다.

“
이 길을 걷는 이마다
제2의 칼빈이 많이 탄생되고,
칼빈을 존경하는 전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도록
”

한나라당 강남구지역구위원회(위원장 공성진 의원)의 요청으로 강남구청은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대치1동과 2동으로 조사지역을 한정하고 칼빈길 명예도로 한 건만 묻는 방문조사 형식을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위촉키로 하여 11월9일(화)부터 7일 이내에 완료 보고키로 했다.

우리교회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한다. 칼빈길이 확정됨으로 이 길을 걷는 이마다 제2의 칼빈이 많이 탄생되고, 칼빈을 존경하는 전 세계 교회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자.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추수감사절및 교회설립을 기념하는 감사의 찬양으로 교육2국(국장:김광신장로)과 3국(국장:신용식장로)에서 부서별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중등부 "오 신실하신 주", 고등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대학부 "다함께 감사 찬양하세", 청년2부는 "목마른 사슴"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2011년도 신입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2011년도 신입 서리집사에 대한 교육과 당회원 면접이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그중 한 번만 참석하면된다.

교육은 501호에서 갖는다.

교육 일시	면접 일시
1) 11. 13(토) 오후 7시	1) 11. 13(토) 오후 7시 45분
2) 11. 19(금) 오후 7시	2) 11. 19(금) 오후 7시 45분
3) 11.20(토) 오전 6시 15분	3) 11.20(토) 오전 7시
4) 11.20(토) 오후 7시	4) 11.20(토) 오후 7시 45분

동정

■ 이종윤 목사는 7일(주일) 이규정 목사 위임식 예배설교를 한다. 8일(월) 한장총 임원회를 소집, 9일(화) 서울강남노회 목사 안수식 설교, 11일(목) 한국로잔위원회 로잔보고대회, 한국교회사학연구원 4회 학술상 시상식 설교를 한다.

■ 제47회 서울강남노회 정기회가 9일 소집된다. 이종윤 목사와 부목사 전원 그리고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김명준 이영기 하여영 수서문석 홍성주 최학민 조정식 장로가 총대로 참가한다.

■ 이사 : 임윤자 권사(8교구)도봉구 도봉1동 서울가든아파트 3-508

■ 주간식당봉사 : 이삭선교회(11.7) 도르기전도회(11.14)

■ 금주의 식사 : 김용환 집사 김수원 집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고등부 『수능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 총동원 주일

기도회 : 11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 ~ 오후 6시 05분

총동원주일 : 14일(주일), 601호 오전 10시

고등부(부장: 최양진 집사)는 수능날인 18일(목)에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다. 수험시간에 맞추어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 기도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또한 14일(주)에는 고등부 총동원주일로 모인다.

<수험생을 위한 공동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시사 대학진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2.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3. 공부한 모든 내용 잘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옵소서.
4.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5.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4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11월14일(주) 오후2시 - 101호

우리교회 사랑부(부장 이계홍 집사)는 사명자대회 기간중 지체가 부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월) 아가페 타운에서 모인 서울 강남노회 목사회 정기모임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특강을 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우리가정 되게 하소서
2.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3. 2010 사명자 대회 특별 새벽기도 위하여
4. 국가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조국 실현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